

HAUS OF MATT ERSKIN HAUS OF MATT HAUS

July 2023

ISSUE 2

ZOOMTERVIEW

프로듀서
얼라이브펑크 인터뷰

FIRST HALF RECAP

국힙 상반기 결산
1월부터 4월까지

BEIGE

키드밀리의 두번째 정규앨범
BEIGE 심층리뷰

AP ALCHEMY CONCERT

AP 알케미 콘서트 현장 속으로

New Albums · BEIGE Review · Editor's Pick · Rage · AP Alchemy Concert
Nowitzki Listening Studio · Zoomterview w/ Alive Funk · First Half Recap

HAUS OF MATTERS



ISUE #2



❖ CONTENTS ❖

1. NEW ALBUMS ❖ P. 1

6월 발매된 6개의 앨범들 & 심층리뷰

P. 11 ❖ 2. BEIGE

Kid Milli BEIGE 심층리뷰

3. EDITORS' PICK ❖ P. 17

에디터 6인이 선정한 6개의 앨범들

P. 21 ❖ 4. FEATURED

레이지 그리고 에이피 알케미 콘서트

5. ZOOMTERVIEW ❖ P. 29

ZOOMTERVIEW with Alive Funk

P. 41 ❖ 6. FIRST HALF RECAP

2023년 상반기를 되돌아보며



NEW ALBUMS



DEMO

Wonstein 05.30

작년 8월 <STANDARD FRIENDS>와 전속 계약 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던 원슈타인이 5월 30일 EP <DEMO>를 발매했다. 총 4곡이 수록되었으며 피제이(PEEJAY)와 자이언티(Zion.T)가 각각 트랙, 총괄 프로듀싱 참여로 힘을 보탰다. 발매 일주일 전 선공개 싱글 "Apocalypse"에서 보여줬던 뮤직비디오 속 수수한 모습과 대비되는 염세적인 가사에서 그는 <쇼미더머니 9>의 종영 이후 이어가던 방송활동, 광고촬영 등에서 느낀 혼란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앨범의 주제를 관통하는 "Apocalypse"와 1번 트랙 "쿨"이 더블 타이틀곡으로 수록되었으며 "쿨"에선 신디사이저를 미니멀하게 활용하면서 그만의 위트를 느낄 수 있었고 이어지는 2번 트랙 "I Don't Believe The Chart"는 바이럴 마케팅과 상반되는 음악적 목표와 가치관을 내세우고 있다. 마지막 곡 "News"에선 초기작에서 했던 결심을 다시 하며 원슈타인의 신보 소식을 기다리던 팬들에게 선물같은 진정성을 보여줬다.

By Devi Ken

CANOPY

MODO 05.31

'습'이란 것이 있다. 살아오며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이 살갗 밑에 자리잡아 본능의 피딱지같이 엉겨붙은 것을 말한다. 이것을 어느 형태로 그려본다면, 빠져나오려 발버둥치고 안간힘을 써도 결국엔 돌고 돌아 제자리에 주저앉게 만드는 뫼비우스의 띠일 것이다. 누군가가 현실을 극복하고 희망의 앞날을 바라보며 힘차게 자신의 꿈을 외치는 이 순간에, 다른 누군가는 트라우마가 끊임없이 상영되는 철저히 고립되고 왜곡된 단색 지옥에 살아간다. Modo의 <Canopy>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살았던 -살아남았던- 초록색의 지옥을 33분 동안 우리 앞에 생생히, 그러나 담담히 펼쳐놓는다. Modo 자신이 총괄 프로듀싱을 맡은 이 앨범은 흡입력 있는 자전적 스토리와 약간의 재즈가 가미된 중독성 있는 인스트루멘탈로 청자의 귀를 사로잡는다. 현실적이기에 그만큼 비극적인 대물림의 역사를 그려내며 Modo는 어린 시절부터 현재 자신의 모습을 건조하게 진술한다. 무력히 마주한 유전의 불가항력과 그 끝에 떠오른 한 가지 물음. '넌 누굴 닮아 그런 사람이 됐었을까?' 과연 Modo는 자신의 삶 전반을 뒤덮은 초록색 덮개를 걷어내고 지옥에서, 습에서 탈출할 수 있었을까? 궁금하다면, 지금부터 당신 앞에 선 꼬마의 손을 잡고 한 걸음씩 따라오길 바란다.



By WRITERSGLOCK

CANOPY란?

덮개라는 의미의 직역과 달리, 이 앨범에서의 캐노피는 커다란 잎사귀를 가진 캐노피 나무를 뜻한다. 캐노피 밑의 하등 생물들은 햇빛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달하게 된다.



By 孔Jesus

SPITTA'S SPITTA MIXTAPE KAMBO, SUPERBEE 06.15

"이 남자는 랩으로 갚는다?"

영앤리치 레코즈를 주축으로 진행된 유튜브 랩 컴피티션 콘텐츠 '드랍 더 비트'를 통해 인연을 맺은 캄보와 수퍼비는 그들의 의리만큼 뜨거운 합작 믹스테잎을 발매했다. 영앤리치 컴필레이션 앨범을 비롯하여 조금은 말랑해진 랩 스타일을 보여주었던 수퍼비는 앨범 타이틀처럼 '뱉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증명한다. 캄보 또한 다양한 사운드 위에서 본인의 장점인 바운스감을 발휘함과 동시에 타이트한 벌스 구성으로 두 래퍼의 타격감을 유감없이 즐길 수 있다. 믹스테이프 형식으로 부담없이 스포츠와 같은 랩을 즐길 수 있는 여름 날씨와 어울리는 두 남자의 콜라보 앨범!

ROOM SERVICE QM, Fredi Casso 06.17

전작 <Empire State Motel>의 시퀄이면서 '쇼미더머니11'에 참가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Room service>. 앨범 속 이야기에는 큐엠이 앞으로 어떤 음악을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힌트가 담겨있다. 프레디 카소는 이러한 서사에 어울리는 사운드로 프로덕션을 꾸려 작품의 몰입감을 배가하고 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모텔로 표상되는 성공(룸서비스)을 쟁취하기 위해 자신의 신념마저 저버리는 참가자들과 이를 바라보는 큐엠. 그는 자신이 지켜나가야 할 음악적 신념에 대한 무언가를 깨닫고 모텔을 박차고 나오게 된다. 큐엠의 날카롭고 유려한 랩과 프레디 카소의 묵직한 프로듀싱이 어우러지며 <Empire State Motel>에서 이어지는 인상깊은 서사를 완성시켰다. 두 작품을 같이 들어보면 큐엠이 그려나가고자 하는 큰 그림의 윤곽이 조금은 선명해지는 듯하다.



By 챼이즈





SHAM

Alive Funk 06.17

전작 <DI-ANA>가 가상 악기와 스플라이스에 대한 비판과 이에 대응하듯 오직 리얼 세션만으로 앨범의 사운드를 꾸며내 그의 소신과 고집을 드러냈다면 이러한 제약을 끈 채 만든 2집 <SHAM>은 그만의 음악적 스타일과 내공을 여과없이 보여줬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공감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본작은 전작과 비교할 때 가상 악기의 적극 사용, 4분을 넘지 않는 곡 길이 등 많은 면에서 이지리 스닝에 편해지게 바뀌면서 앨범 또한 캐주얼한 분위기를 띤다. 그렇지만 베이스와 기타를 중심으로 평키한 사운드를 보여준 "No Filter"나 그의 음악 중 가장 미니멀리즘하지만 허전한 구석은 찾아보기 힘든 "Hunting Season" 등 넓은 스펙트럼과 적재적소에 활용된 악기들의 조합에서 나오는 사운드적 풍부함은 전작 못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 또한 언더, 오버 가릴거 없이 개성적인 22명의 피처링진이 참여해 곡의 매력을 극대화시킨 건 물론 "샤워"나 "Cinema Club"같이 수록곡 상당수에 이루어진 프로 + 아마추어 아티스트의 조합은 본작에서만 볼 수 있는 신선한 시너지를 만들 어냈다.

2 KIDS ON THE BLOCK, PART.1

Dynamic Duo 06.23

드디어 정규 10집. 다이나믹 듀오는 이 기념비적인 자리를 온전히 그들만의 이야기로 채우려는 듯하다. 잔잔한 무드 속 이병헌의 나레이션으로 막을 여는 <2 Kids On The Block>의 첫 번째 조각에는 최자와 개코의 학창시절부터 다이나믹 듀오를 결성하기 직전까지의 스토리가 그려진다. 밑바닥부터 시작된 이들 청춘의 면면은 투박하지만 이를 포장하는 퀄리티 있는 프로덕션은 작품의 분위기를 고급지게 만들어준다. 특히 “하루종일”에서 개코와 함께 프로듀싱을 담당한 유스호스텔의 익보가 주조해낸 재지풀한 사운드는 인상적이다. 최자와 개코 두 뮤지션의 랩 또한 오랜 세월로 다져진 탄탄한 리듬감을 통해 청자의 귀에 착 달라붙어 이야기에 몰입감을 더한다. 10집의 시작을 알리는 파트1의 완성도는 담백하지만 출중했다. 나머지 파트 역시 이러한 흐름을 이어나간다면 <2 Kids On The Block>은 틀림없이 2023년 손꼽힐 만한 작품이 될 것이다.



By **쟈이즈**

릴재우는 살아있다



릴재우는 살아있다

Lil Jaewoo 23.06.04

- 1. 살아있다
- 2. OFFLINE ONLY (feat. Curly)
- 3. 저녁메뉴추천 (feat. DJ Kendrickx)
- 4. 1 Free Drink가 있어 불행
- 5. 백마디 말보다 한마디 Bar (Skit)
- 6. 노쿨암쓰리
- 7. 언제까지 언젠가는 (feat. pfound & 7uog)
- 8. 그래도 공연은 해야지

LIL JAEWOO IS ALIVE

Review by 쟈이즈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물어본다면 어떤 것에 미친 듯 열중하며 다양한 감정을 겪었을 때가 아니었나 싶다. 무언가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삐 움직일 때 느꼈던 것들이야말로 어떤 것보다 생생했기에. 언더그라운드 힙합 공연은 물론 자신의 음악을 들려줄 수 있는 곳에는 어디든 달려가 무대에 올랐던 뮤지션 릴재우. 첫 정규앨범 <릴재우는 살아있다>는 이러한 그의 살아있는 순간을 포착해낸다.

예전 인터뷰에서 자신의 음악을 ‘이지리스닝 힙합’이라 칭했던 것처럼 릴재우의 랩은 담백하다. 라임 배치를 비롯한 가사의 구조는 직관적이며 선굵은 톤에서 나오는 정확한 발음의 랩은 청자들이 그의 이야기를 단번에 캐치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나아가 유머러스한 가사와 힘을 잃지 않는 텐션으로 힘찬 분위기를 만들어 나간다. 특히 이번 작품의 프로덕션은 신디사이저 라인이 메인으로 나서기에 다소 차가운 느낌이 들 수 있었지만 릴재우의 랩 퍼포먼스는 이 비트의 분위기마저 아랑곳하지 않고 밝은 무드를 이끌어낸다.

그렇기에 <릴재우는 살아있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그가 공연을 하며 겪는 이야기들을 따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 공연 후 관객들과 소통을 한다거나, 무대에 오르기 전 목을 아끼기 위해 단 두 마디의 랩을 뱉는 트랙 “백마디 말보다 한마디 Bar”처럼 실소가 나오게 만드는 순간은 릴재우의 인상을 더욱 푸근하게 만들어준다. 언더그라운드 공연에서 느낄 수 있는 뮤지션과 관객 사이의 가까우면서 친근한 거리감이 잘 드러난다.

물론 작품 속에는 이런 유쾌한 모습 이면에 자리하는 씹쓸한 현실 또한 담겨있다. “1 Free Drink가 있어 불행”이나 앨범의 최후반부 구간은 언더그라운드 공연에서 자신이 겪었던 일들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는 구간이다. 그럼에도 작품의 분위기는 처지지 않는다. 마지막 트랙 “그래도 공연은 해야지”에서 계속해 무대에 오르는 그의 모습처럼 극복 의지를 내보이기 때문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열정을 불태우는 때야말로 릴재우가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보이는 순간이다.

여기서 릴재우의 이야기는 앨범 외적으로 뻗어나간다. 그는 올해 공연기획자가 되어 브랜드 ‘백투더푸쳐핸섬’을 런칭했고 홀수 달마다 이를 개최하고 있다. 관객 및 뮤지션들의 공연 참여도나 정산 이슈 등 그가 작품에서 언급했던 문제점에 대한 나름의 보완책을 갖춘 공연이다. 릴재우는 겪었던 경험들을 단순히 성토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언더그라운드 뮤지션들이 좀 더 나은 공연 환경을 가질 수 있게끔 발 벗고 나선 셈이다. 이를 캐치하고 <릴재우는 살아있다>를 듣게 된다면 그 감흥은 남다르게 다가올 것이다.

<릴재우는 살아있다>는 작은(Little) 재우의 커다란 한 발자국이다. 누군가는 이러한 그의 모습에 스스로를 투영할지도 모르겠다. 좋아하는 무언가를 위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삶. 이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다양한 감정이 어우러져 비로소 자신이 정말 살아있음을 실감하게 만들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기에 이 작품은 청자들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건네는 듯 하다. 무대 위 릴재우는 살아있다는 것. 나아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전진하는 이들 또한 살아있다는 것을.



FREDICASSOISMYPRODUCER

kitsyojii 23.06.13

1. No Auto-Tune Music
2. Water
3. 근본 2 (feat. Deepflow)
4. Hattori Hanzo (feat. Chillin Homie & 노윤하)
5. Rap Money (feat. Owen & Dada)
6. 동전 한닢
7. AVENUEL (feat. The Quiett & Rakon)
8. Where Are We (feat. 가오가이)
9. P4P
10. NSW yojii (feat. NSW yoon)



FREDICASSOISMY PRODUC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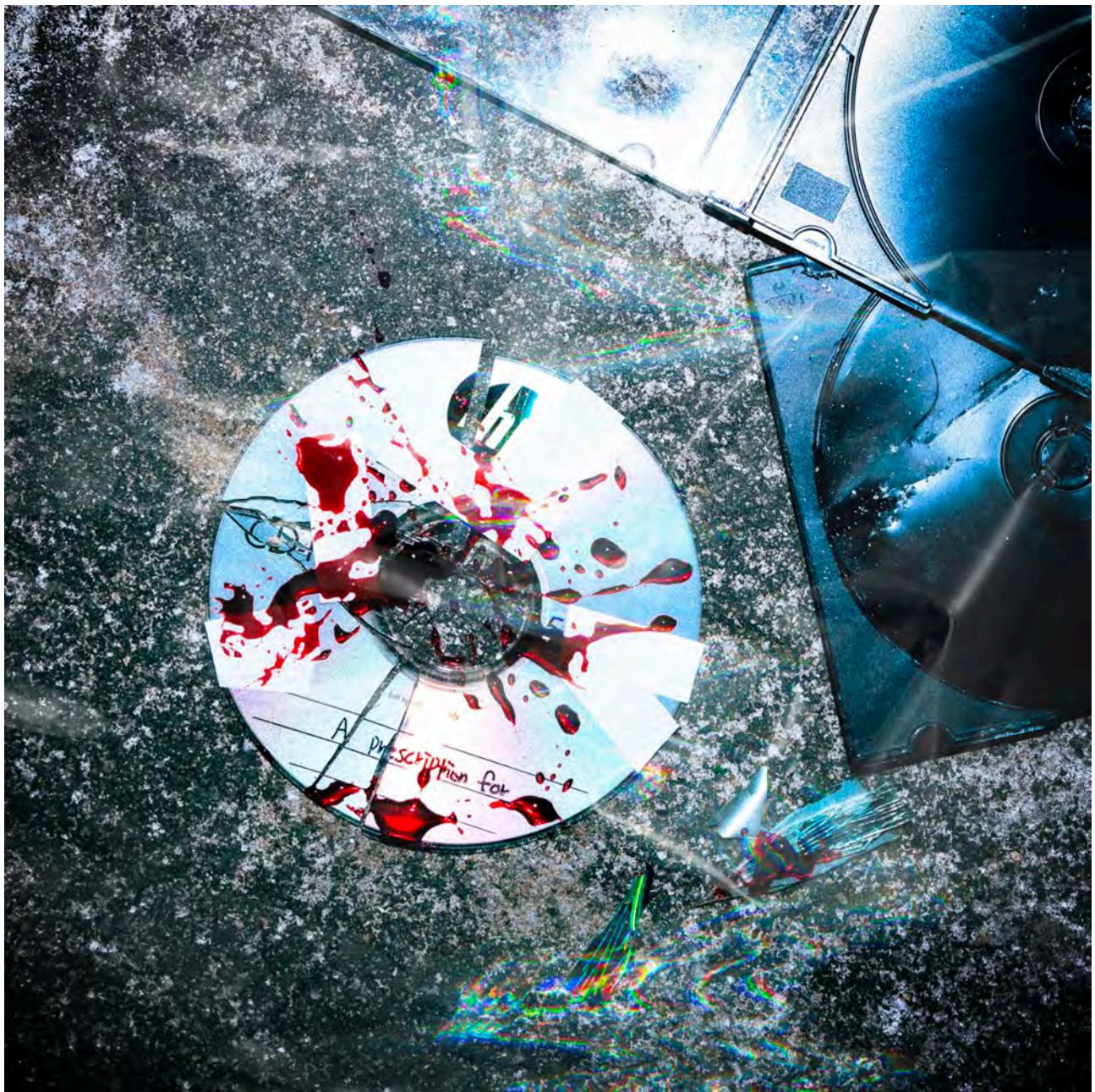
Review by WRITERSGLOCK

키즈요지의 첫 정규인 <돈이 다가 아니란 새끼들은 전부 사기꾼이야>에서 키즈요지와 Fredi casso는 완벽한 협업으로 리스너들의 호평을 이끌어냈다. 그 뒤로 발매한 ep들에서도 찰떡같은 랩과 프로듀싱으로 둘의 조합을 확실히 각인시켰다. 그 뒤로 시간이 좀 지났고, 둘은 다시 뭉쳤다. 이번엔 프로듀서인 Fredi casso의 이름을 대문에 내걸고. 앨범의 제목을 보자마자 기대가 되었던 이유는, 최근 Fredi casso가 내놓은 비트들이 모두 만족스러웠기 때문이었다. 디젤과의 합작 <SECOND II NONE>에서부터 손심바의 <DOUBLECROSS MUSASHI> 등 ‘그리젤다류’ 붐뱁을 국내에서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고 여겨졌고, 그 위에 얹어질 키즈요지의 랩은 당연히 기대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앨범이 발매되고 재생 버튼을 눌렀을 때 기대감은 완전한 만족감으로 돌아왔다.

첫 곡 “No Auto-tune Music”은 제목에서부터 키즈요지에 대한 기존 이미지를 박살낸다. 키즈요지는 주로 트랩에서 오토투를 사용하며 다이나믹한 랩을 보여주었었다. 그러나 이 곡에서 ‘대부분 몰랐겠지만 이런 거 나는 전문’이라 외치며 오토투 없이 Fredi casso의 비트에 능숙하게 올라탄다. 키즈요지의 랩은 목소리나 가사의 색깔, 플로우까지 가볍다는 인상을 주기 쉬운데, Fredi casso가 뒤를 묵직하게 밟쳐주며 밸런스를 잡는다. 이는 3번 트랙 “근본 2(feat. 딥플로우)”에서 잘 드러난다. 묵직한 베이스와 드럼이 두드러지는 비트에 키즈요지의 날카로운 랩이 실리고 딥플로우가 예의 유려한 라이밍과 플로우로 확실히 제 몫을 해준다. 다음 트랙인 “Hattori Hanzo(feat. Chillin Homie, 노윤하)”에서도 동양풍의 둔탁한 붐뱁 비트 위에 세 명의 래퍼가 자신의 실력에 대한 자부심을 한껏 뽐낸다. 트랩에서 자주 보였던 Chillin Homie와 노윤하가 Fredi casso의 붐뱁을 리듬감 있게 타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인데, 개인적으로 가장 좋게 들은 곡이다. 이 앨범을 재생하고 나서 이 트랙까지 왔다면, 앨범을 끝까지 들어야 할 이유가 생겼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리젤다 레코즈 풍의 비트는 어떻게 되었을까? 사실 이 앨범에서는 최근까지 Fredi casso가 뽑아냈던 드럼리스 스타일의 비트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나마 드럼이 뒤쪽에 있다고 느껴지는 곡은 6번 트랙 “동전 한 닢 Freestyle”이다. 차펑된 소울 샘플과 미약한 드럼에서 키즈요지는 힙합을 하게 된 계기인 다이나믹 듀오를 샤라웃한다. 1분 남짓의 곡이지만 현재의 자신을 만들어준 다이나믹 듀오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물씬 묻어난다.

앨범은 9번 트랙 “P4P”에서 icos의 시그니처가 튀어나오며 트랩으로 전환된다. 전작부터 이어져오던 Fredi casso이자 icos와 키즈요지 사이의 관계를 다시 환기하는 듯한 느낌인데, 키즈요지의 작품들을 쭉 지켜온 리스너들이라면 반갑게 들었을 것이다. 이번 작품에서 키즈요지와 icos의 호흡은 단 두 트랙으로 마무리되지만, 앨범의 분위기를 환기하는데 있어서는 꽤 적절했다. 이렇게 둘은 리스너의 뇌리에 자신들의 이름을 다시 한 번 박아 넣는데 성공했다. 다방면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Fredi casso나, 꾸준히 허슬하는 키즈요지나 이제는 씬에서 묵직하게 자리를 차지하는 아티스트라는 생각이 든다. 믿고 듣는 조합인 Fredi casso와 키즈요지의 이번 앨범은 시간 내서 들어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감히 권해본다.



A PRESCRIPTION FOR

Leebido, HD BL4CK 23.06.16

- 1. 도금칠 (feat. Deepflow, IGNITO) 2. 나이키 (feat. KWALL, myunDo) 3. 훈민정음 (feat. SINCE)
- 4. 도모 5. 꿈 6. 아리십더킹 (feat. 스카이민혁) 7. 빨뚜 (feat. Chaboom) 8. 지로 오마카세 (feat. 멧돼지) 9. Magtae Freestyle

Best Track: 나이키 (feat. KWALL, myunDo), 아리십더킹 (feat. 스카이민혁), 빨뚜 (feat. Chaboom)

A PRESCRIPTION FOR

Review by 악귀불패워럽

레이백앤칠(LayBack N Chill, 이하 LBNC)은 현재 장르 씬에서 한국적인 색채를 날 것의 형태로 가장 세련되게 드러내는 집단이다. 오랜 준비 끝에 다시 활동을 개시하려는 LBNC의 선택은 신예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신예로 리비도(Leebido)를 고른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다. 촘촘한 랩 스킬에 비해 아티스트로서 별 특색은 없던 리비도는 차붐, HD 블랙(HD BL4CK) 등 레이블 메이트들과 협업을 거쳐 서서히 실력을 쌓아갔고, <Young Damian Life>(2021)에 이르러 오토툐 운용과 서사 구축 능력으로 그 한계를 넘어서게 되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이 합작 믹스테이프는 보다 본격적이다. 이 앨범은 앨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장르 팬들을 위한 처방전'을 표방하고 있고, 이에 따라 9트랙 25분여의 짧은 러닝 타임을 힙합에 대한 애정으로 가득 채웠다. 그리고 그 표현 방식은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다. 그간 머천다이즈 판매 위주의 활동을 보여주던 LBNC의 복귀로서는 최고인 셈이다.

사실 HD 블랙과는 이전에도 자주 합을 맞춰 온 조합이지만, 이 둘의 경향은 매끈한 최신의 트랩을 향했다. 그랬으니만큼, 이 앨범의 음악적 방향성이 고전적이라는 것은 흥미롭다. 랩에는 오토툐 활용대신 끈적한 레이백과 하이 톤, 각진 스피드이 붙었고, 프로덕션도 이에 따라 블랙과 멤피스 랩을 고루 오간다. 특히 사운드적 기둥을 이루고 있는 것은 멤피스 랩이다. 카우벨 소리를 시끄럽게 울려대는가 하면("도모"), 808 베이스 소리만 남긴 뒤 여러 효과음 만으로 타격감을 조성하거나("꼽") 보이스 샘플과 카우벨의 교차로 야성적인 맛을 자아내는("아리십더킹") 식으로 장르적인 정석이 높은 수준으로 구현되어 있다. 이러한 클리셰적인 접근은 고전적인 블랙 넘버들("도금칠", "Mangtae freestyle"), 그리고 마진초이의 도움을 받은 컨트리한 더리 사우스 씻("나이키")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러한 경향이 드릴의 요소를 차용한 변주("빨뚜")나 1분대의 짧은 러닝타임("도모", "꼽"), 기타나 동양적인 소스들이 더해진 트랩 넘버들("훈민정음", "지로 오마카 세 Flow")과 같은 트렌디한 요소와 어우러진다는 것도 이 앨범의 매력 중 하나다.

HD 블랙은 이 앨범의 게스트에 대해 '꼭 작업하고 싶던 이들과 최대한 협업하고 싶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감안한다면 '의외의 인물들'과 '어릴 적부터의 우상'이 공존하고 있다는 HD 블랙의 설명이 이해간다. 특히 레이블 메이트들을 영리하게 활용한 것이 눈에 띄는데, 가령 LBNC에서도 가장 고전적인 결을 지닌 이그니토를 딥플로우와 함께 돋한 블랙 넘버에 투입하여 빅딜 시절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나이키"의 더리 사우스 프로덕션에 녹아드는 면도의 유연한 그루브도 상술된 영리한 활용의 좋은 예시다. 특이한 부분이 있다면 차붐이 이전보다 굵고 거친 톤과 바디감을 드러낸다는 부분인데, 이것이 "빨뚜"의 야성적인 맛과 조화되었을 때 다가오는 타격감이 상당하다. 이외에도 콰이(KWAI), 신스, 멧돼지, 스카이민혁과 같이 LBNC와 '한국적인 날것'이라는 코드를 공유하는 이들이 앨범에 목소리를 함께하고 있다.

이래저래 늦어지긴 했지만, <A prescription for>를 통한 LBNC의 2023년의 첫 걸음은 성공적이다. 언제나처럼 이들은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가장 날 것의 에너지를 앨범에 담았고, 리비도와 HD 블랙의 합은 그 에너지 중에서도 가장 신선한 것이었다. 고전으로 돌아간 이들의 방향성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장르적인 애정과 특유의 재기발랄함이 충만하며, 이것이 좋은 랩, 좋은 비트라는 제일 우직한 방식으로 표현되었다는 것 역시 이 앨범의 미덕이다. 그간 예고되어온 레이블의 여러 대작들의 예고편 정도로 소비되기에에는, 앨범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모두 굽직하다.



BEIGE

HAN^{KSA}





BEIGE

Kid Milli 23.06.16

- 1. ron interlude 2. BEIGE theme 3. HONDA ! 4. Simple Poem (feat. Rad Museum)
- 5. pH-1 interlude 6. Still friend ? (feat. pH-1) 7. R.I.P (feat. B.I) 8. Test Me? 9.
- Leellamarz interlude 10. twirl 11. BNC (feat. Sik-K & 우원재) 12. Coupe ! (feat. lobonabeat!) 13. Lost and found freestyle 14. Let Me Down ! (feat. Raf Sandou)
- 15. 25 (feat. Young B) 16. Kid Milli interlude. 17. BORA

BEIGE

Review by EASYB

키드밀리는 매우 안정적이면서도 한편으로 다사다난한 커리어를 가진 래퍼다. 짧은 기간 안에 앨범과 쇼미더머니를 통해 본인의 위치를 급격하게 바꿨고 이후엔 <L I F E>와 <Beige 0.5>를 비롯해 심적으로 침잠한듯한 모습(슬럼프?)을 보이면서도 좋은 벌스를 꾸준히 뱉어왔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 속, (본인 표현대로) 가장 우울한 시기에 dress와 발매한 <Cliché>로 커리어 중 가장 아티스트다운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그렇게 래퍼로선 누구보다 성공적이지만 내면에선 치열했던 커리어를 밟아오면서, 키드밀리는 다시 본인이 '처음 하고 싶어했던 음악'으로 눈을 돌린다. 하입되는 비트와 랩, 화려함과 과시, 그가 하고자했던 초심과 같은 음악인 <BEIGE>이다.

본작을 논함에 있어 프로덕션을 빼놓을 수 없다. 무난한 타입비트부터 뻥어 사운드, DPR의 팝 터치, 후반부의 멤피스, 레이지까지 다양한 사운드와 장르를 넘나들고 모든 트랙들이 수준급의 완성도를 보인다. 특히 이번 앨범의 킬링 트랙이라 생각하는 "Let Me Down!"의 변주되는 비트는 매우 인상적이다. Interlude의 도입과 피쳐링진의 등장으로 무드를 전환하는 구성은 이러한 본작의 난잡한 잡탕같은 프로덕션을 앨범으로 엮어내는데에 성공한다. 앨범으로서 최소한의 사운드 유기성은 잊지 않으면서도 분위기를 180도 전환함과 동시에 잖은 무드 변환으로 지루함을 없애는 탁월한 선택이다. 한국에서 몇 없던 선택인지라 신선하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하다. 무난한 선택이라 느껴지는 지점들도 있지만 17 트랙이라는 볼륨을 감안했을 때 전반적으로 재미있는 구성이다. (전체적으로 오카시갱이 조금씩 참여했는데, 그들의 앨범과 <Upgrade5>가 더욱 기대된다)

2023년에 들어 18년도를 뛰어넘는듯한 키드밀리의 퍼포먼스는 등장부터 퇴장까지 힘을 잃지 않는다. 각종 피쳐링 벌스부터 AP 컴필레이션까지 압도적인 피지컬을 보이는 그에 걸맞는 랩으로 앨범 전체를 가득 채웠다. 발전한 모습까지 보인다. 이전의 키드밀리의 톤은 랩에선 기계적이며 차가운 인상을 주지만 멜로디 소화엔 강점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본작에선 리버브와 같은 효과로 흙을 처리하거나 높은 음역대를 제거하면서 이 점을 해결했다. 거기에 "추월, Coupe!, Let Me Down!, 25" 같이 자기 색 뛰어난 장르 트랙들도 무리 없이 깔끔히 소화한다. 필자가 좋아하는 "Test Me?" 같이 붐뱁 위 여유있는 담백함도 잊지 않았다. 본작의 키드밀리는 그가 구사할 수 있는 모든 스타일을 수준급으로 선보였다. 향후 그의 다음 앨범이나 다양한 피쳐링 벌스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피쳐링진도 화려한 라인업에 걸맞는 퍼포먼스를 보인다. lobonabeat!나 라드 뮤지엄, B.I 같은 예상치 못한 라인업부터 pH-1과 릴러말즈 같이 어딜가나 빠지지 않는 라인업까지 골고루 등장한다. 거기에 대부분이 성공적으로 곡을 돋보인다. 특유의 기묘한 멜로디 라인과 함께 찰진 흙을 만들어내는 라드 뮤지엄과 이젠 정말 트랩으론 깔 수 없는 위치에 올라선 lobonabeat!, 요즘들어 커리어 중 가장 랩을 잘하고 있는 릴러말즈가 대표적이다. 꽤 신선한 도전도 있었다. 많은 호불호 섞인 반응을 이끌었지만, 양홍원의 벌스는 그가 한번 더 성장했음을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ron의 벌스는 짧으며 더 섹시한 보컬을 기대해서였는지 아쉬웠고 Sik-K의 랩은 큰 인상을 남기진 못했다.



하드웨어의 면모가 탄탄하지만 앨범의 한계점은 꽤나 뚜렷한 편이다. 먼저 가사가 아쉬움을 부른다. 아무리 플레이리스트 형식의 청각적 재미를 위한 앨범이라지만 서사는 고사하고 유기성도 그닥 신경쓰지 않은듯 한 면모는 아쉽다. 피쳐링진의 활용에서 특히 두드러지는데, pH-1과 릴러말즈처럼 각 챕터를 여는 듯한 역할을 하는 참여진들이 상반된 내용을 뱉는 구성은 정말 유기성에 신경쓰지 않은 듯한 면모를 여실히 보인다. "Kid Mili Interlude" 같이 스토리텔링이 매력적인 몇몇 트랙들이 아쉬움을 조금씩 반감시켜주지만 전체적인 작사가 깔끔했던 *<Clémé>*와의 비교는 피할 수 없다. 또 이젠 시대착오적이라 느껴지긴 하지만, 큰 의미 없는 영어 가사의 남발은 더 좋은 라인을 만들 수 있었을꺼란 아쉬움을 준다. 키드밀리의 기계같은 랩이 한 국어의 각진 면모와 만났을때의 궁합을 더 좋아하는 필자의 취향도 작용했을 것이다.

또한 (키드밀리가 동경하는듯한) 타 아티스트들의 잔재가 뚜렷하게 머무는 점이 미묘하게 감흥에 걸림돌이 된다. "BEIGE Theme, Lost And Found Freestyle" 같은 제목의 선정부터 몇몇 트랙에서 느껴지는 스타일까지 묘하게 외힙의 아티스트들이 보인다. 카피는 아니며 잘 소화하지만 그 그림자가 보이는 것은 아쉽다. 대뷔 초기를 생각하면 많이 줄었다는 인상도 받지만 이마저도 가장 덜했다 느껴지는 *<Clémé>*와 비교되는 대목이다.

사실 본인이 음감회에서도 언급했듯, 키드밀리는 앨범의 많은 부분을 설계하는 아티스트는 아니며 그런걸 잘 하지도 못한다고 한다. (그래서 *<CLICHE>*가 더욱 고평가 받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본작과 비슷한 플레이리스트식 앨범이었던 *<AI The Playlist>* 때와는 달리 내면의 갈등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의 키드밀리가 전하고픈 이야기가 없었을지도 모르고, 실제로 딱히 보이지도 않는다. 그렇기에 *<BEIGE>*는 지금의 키드밀리에게 가장 어울리는 앨범이라 생각한다. 과도한 메세지나 감정기복 없이 꾸준히 들을 수 있는 수준급의 랩 앨범이다. 아마 현직 래퍼들 중 17 트랙의 다양한 스타일을 모아놓은 본작만큼 좋은 이지리스닝 앨범을 뽑을 래퍼는 몇 없을 것이다. 청각적 호불호만 이겨낸다면, 본작은 충분히 쉽고 재미있게 들을 수 있을 가치있는 앨범이 될 것이다.







EDITORS' PICK



By BlackMatter

Editors' Pick이란?

Editors's Pick은 장르와 시대 불문
에디터들이 한 달간 가장 다뤄보고 싶
었던 6가지의 앨범 또는 음악을 다루
는 코너입니다.

UNFORGIVEN

LE SSERAFIM 23.05.01

EP <Fearless>와 <ANTIFRAGILE>에서 르세라핌은 메인 프로듀서 13의 프로듀싱과 하이브의 자본이 낳은 시너지를 통해 성공적으로 자신들의 서사를 풀어나갔다.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는 멤버들의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전해주었고, 르세라핌을 마켓 리더로 자리잡게 했다. <ANTIFRAGILE> 이후 7개월 만에 첫 정규 앨범으로 돌아온 르세라핌은 7개의 트랙을 통해 또다시 자신들의 방향성을 대중들에게 각인시킨다. 나일 로저스의 기타와 석양의 무법자를 샘플링한 타이틀곡 "UNFORGIVEN (feat. Nile Rodgers)"와 금기를 깐 여성들을 제목에 담은 저지클럽 비트기반의 "이브, 프시케, 그리고 푸른수염의 아내" 등의 트랙을 통해 르세라핌은 이번에도 역시 성공적으로 자신들의 내러티브를 형성해냈다. 또한 사운드클라우드에서 공개된 비비, 카모, 그리고 미란이와 함께한 "이브, 프시케, 그리고 푸른수염의 아내 Remix"는 K-Pop 장르에서 흔하지 않은 시도를 해내며 르세라핌의 장르적 한계를 넓힌다.

밑

96.09.08 Panic

다양성이 폭발적으로 높아지던 90년대 한국의 대중음악 중에서도 패닉은 특별했다. 이적의 음악적*문학적 창의성, 그리고 김진표의 반항기와 다양한 퍼포먼스가 결합된 순간, 이들의 음악은 영원한 생명력을 얻게 되었다. 이 중, 이들의 두번째 앨범인 <밑>은 그 완성도가 남달랐다. 이적은 자신의 모든 창의성을 쏟아부어 즉흥 라이브 만으로 10분을 끌어가는 대곡("불면증"), 클래식과 월드뮤직적 요소마저 담긴 아방가르드함("그 어릿광대의 세 아들들에 대하여"), 횡크 락에 가해진 5/4박자라는 기괴한 변주("혀") 등의 광기 어린 실험을 전개했고, 김동률, 김세황, 남궁연, 삐삐밴드 등의 동료들이 이를 보좌했다. 때마침 가사 심의 제도가 폐지되자, 이적과 김진표는 유례없을 정도로 과격하고 전투적인 가사들을 이 기괴한 사운드에 담아냈다. 그 결과, 이 앨범은 90년대의 여러 명작 중에서도 불멸의 문제작으로 남게 되었다.



By 악귀불패워럽



By 孔Jesus

BLEACH

Glen Check 22.03.03

여름은 한낮의 뜨거움과 새벽의 선선함이 공존하는 계절이다. 무더위를 피해 사람들은 바다를 찾기도 하고. 새벽의 선선한 공기를 즐기기 위해 캠핑을 즐기기도 하는 두 개의 다른 특성이 도드라지게 드러난다. 필자에게 Glen Check의 <Bleach>는 여름과도 같은 작품이다. 시종일관 무거운 베이스는 뜨거운 날씨의 후덥지근함을, 그 위로 자유롭게 뛰노는 가벼운 신시사이저와 일렉 기타의 멜로디는 샤워를 마치고 난 후 바람을 쐬는 시원한 느낌을 자아낸다. 또한 그 위로 흐르는 준원의 보컬은 뜨거움과 선선함이 동시에 느껴지는 사운드와 조화를 이루며 '여름이었다...' '밈을 떠올리게 하는 노스텔지어를 형성한다. "Dive Baby, Dive"로 그들의 열기에 푹 빠지고, "I Feel Like Ridin' Slow"를 통해 새벽 공기를 들이마시며 여름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

곡예사 2 Remix Gwangil Jo 23.06.20

6월 9일 발매됐던 조광일(Jo Gwangil)의 싱글 "곡예사2"에 이어 6월 13일 <dingo freestyle>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곡예사2 REMIX(Feat. MC Sniper, 식보이, Hash Swan, 마미손, TAKEWON, 쿤타, 2faith)>가 힙합팬들의 주목을 받았다. 의외의 피쳐링 참여진으로 엠씨 스나이퍼(MC Sniper), 해쉬스완(Hash Swan), 마미손(Mommy Son), 테이크원(TAKEWON)을 꼽을 수 있다. 스컬(Skull)을 제외한 <사자레코드> 멤버들의 전원 참여로 오피셜한 출사표라고 볼 수 있는 이번 리믹스는 스크래치로 참여한 DJ 2faith까지 피쳐링 크레딧에 이름을 올리며 마무리되었다. 리스너들 사이에서 참여진마다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게 흥미로웠으며 일명 '속사포 랩'에 대한 의견도 커뮤니티에 오르내리곤 했다. 데뷔 당시 그만의 개성이자 무기였던 '속사포 랩'이 과연 양날의 검이 될지, 더 날카로운 무기가 될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2020년 "곡예사"의 등장부터 <쇼미 10>에서 우승한 그의 디스코그래피는 <사자레코드>에 합류하며 "곡예사2"로 2막을 열었다. 이번 리믹스에서 엿볼 수 있듯이 그간 활동하면서 씬에 대한 회의감과 아티스트로서 성장하고자 하는 조광일만의 스웨깅을 즐길 수 있는 곡이다.



By Devi Ken





소리선 ITÉ 23. 06. 25

AITE에서 ITÉ로 새로 이름을 바꾼 그의 새 앨범 <소리선>은 여러 의미로 감탄을 자아낸 앨범이었다. 먼저 시선이 가는건 프레디 카소, 비앙 등 다수의 프로듀서들이 참여해 다채로운 사운드들을 제공해주는 등 전작들에 비해 앨범을 향한 전폭적인 지원 상당히 커졌단 것이다. 또한 ITÉ도 이에 걸맞게 이전보다 더욱 땜평있는 발전된 래핑을 갖고 왔으며 이 둘의 결합은 앨범내내 사운드적인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이 앨범의 진가는 "Money Fever"을 기점으로 드러난다. 자신이 과거에 겪은 도박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풀어냄으로서 자연스레 서사에 더욱 집중하게 만들면서도 다른 작품과의 차별점을 지니게 한 것이다. 이후 이런 자신에 대한 후회와 중독 증세를 이겨내는 모습을 그려내지만 마지막 트랙인 "Same Book"에선 이것이 불완전한 탈피임을 암시함과 함께 열린 결말로 끝난다. 이처럼 <소리선>은 하나의 용기 있는 고백을 넘어 자신의 발전된 음악성을 토대로 이를 예술로 승화하는 아티스트로서의 능력을 증명한 앨범이 되었다.

By LODING

MACHINE BOY SILICA GEL 23. 04. 25

2020년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해 싱글로만 간간이 모습을 비추던 실리카겔의 신규 EP <Machine Boy>가 지난 4월에 공개되었다. 기존에 싱글로 공개되었던 산산기어와의 콜라보 곡 Mercurial, 반년간 공연에서만 선보이던 Realize, 그리고 NO PAIN 리믹스까지, [Machine Boy]는 2020년 <Kyo181> EP를 바탕으로 새로 구축하기 시작한 그들의 서사를 한데 모아 발매한 그들의 두번째 데뷔 앨범이라 보아도 무방하다. 총 4인의 멤버와 2명의 보컬, 6개의 곡과 1명의 "머신보이"로 이루어진 이 앨범은 실리카겔의 음악 중에서도 가장 혁신적이며 사운드적으로 가장 우수하다고 자부할 수 있다. 모든 멤버들이 작곡에 참여하며 최대한 모든 멤버들이 함께 녹음을 했다는 그들의 작업 방식에서 보여지듯 이 앨범엔 단 한명의 프런트맨도, 혼자 튀는 어느 요소도 존재하지 않으며 오로지 머신보이라는 페르소나를 통해 그리는 그들의 세상만이 존재한다.



By SNXO



FEATURED

RAGE

By Devi Ken

기존의 전자 음악과 달리 더 실험적이지만 캐치한 흑과 단순한 탑라인으로 주목받았던 하이퍼팝은 초기 PC Music 소속 아티스트들의 작품에서부터 시작하여 팝 시장에서 메가 히트곡을 줄곧 만들어내던 Charli XCX의 합류로 그 위치가 더욱 견고해졌다.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힙합 또한 크고 작은 공연들의 런칭이 불발되었고 틱톡, 인스타그램 등의 SNS에서 솟폼 콘텐츠가 큰 인기를 끌며 음악의 속도를 배속하는 Sped Up 버전과 러프한 사운드를 추구하던 하이퍼팝 장르가 팝 시장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떠올랐다. 이후 하이퍼팝은 스포티파이에 하나의 장르로 등록되었고 샘플링 작법을 통해 다른 장르음악을 믹싱하던 힙합에서도 이들의 정신이 스며들었다.

플레이보이 카티를 필두로 최근까지도 미국 힙합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서브 장르 Rage는 그의 정규 1집 <Die Lit>에서 피에르 본의 미니멀한 프로덕션과 카티의 Raw한 매력이 합쳐지며 그 탄생을 예고했다. 그 후, 2021년 트리피 레드의 정규 4집 <Trip At Knight>에서 플레이보이 카티와 함께 한 싱글 “Miss The Rage”가 발매되고 이 곡이 큰 히트를 치면서 장르 팬들 사이에서 Rage로 불려지게 되었다.

<Die Lit>의 흥행 이후 2019년 플레이보이 카티가 설립한 오픈워 레코드엔 현재 레이지 장르를 시도하는 신인 중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디스트로이 론리와 켄 카슨이 소속되어있다. 회사명인 오픈워은 '아편'이란 뜻으로 이들 또한 마약, 여자, 술 등의 자극적인 소재로 랩을 하고 있으며 그 밖에 신인으로는 이트, 소페이고, 칸칸 등이 있다. 점점 커지는 Rage의 인기에 힘 입어 이들도 본인만의 스타일을 구축해나가는 중이다.

한편 기성 아티스트들 사이에서도 심심치 않게 Rage를 시도하는 걸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했던 트리피 레드는 정규 4집의 총괄 프로듀싱 과정에서 Rage 사운드를 채택했으며 트리피 레드 특유의 음습한 분위기를 애니메이션 비주얼라이저로 재밌게 풀었고 이 앨범은 상업적으로도 좋은 성과를 보였다. 또한 작년 10월엔 릴 야티가 싱글 “Poland”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신디사이저가 뭉개질 정도로 자극적이고 직관적인 이 사운드는 많은 리스너들의 청각적 쾌감을 만족시켜주었고 대부분 곡 전체가 1분 30초 가량 되는 짧은 러닝타임 덕에 이지리스닝에 특화되어있다.

국내에서도 김상민그는감히전설이라고할수있다, 캐쉬뱅(Kash Bang), 왈리(Xwally) 등의 신인들부터 릴 모쉬핏(Lil Moshpit), 키드밀리(Kid Milli), 식케이(Sik-K), 라보나비트(lobonabeat!), 디보(Dbo) 등 굵직한 아티스트들. 에이피알케미(AP Alchemy), 영앤리치레코즈(YNG & RICH), 더티플레이레코즈(Dirty Play)와 같은 메이저 레이블들의 컴필레이션 앨범에 이르기까지 많이 기용되고 있다.

과연 래퍼들의 Rage Mode는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한국의 삶과 자극적인 사운드가 잘 어우러지고 장르 팬들의 환호를 이끌어낼지 아니면 기믹으로만 치부될지는 분명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에선 여전히 Rage 장르를 플레이보이 카티만의 전유물로 의식하는 여론이 많다. 앞으로 국내 래퍼들 중에서 이 장르의 대표격인 플레이보이 카티와 구별되는 본인만의 스타일로 Rage를 선보이는 래퍼가 등장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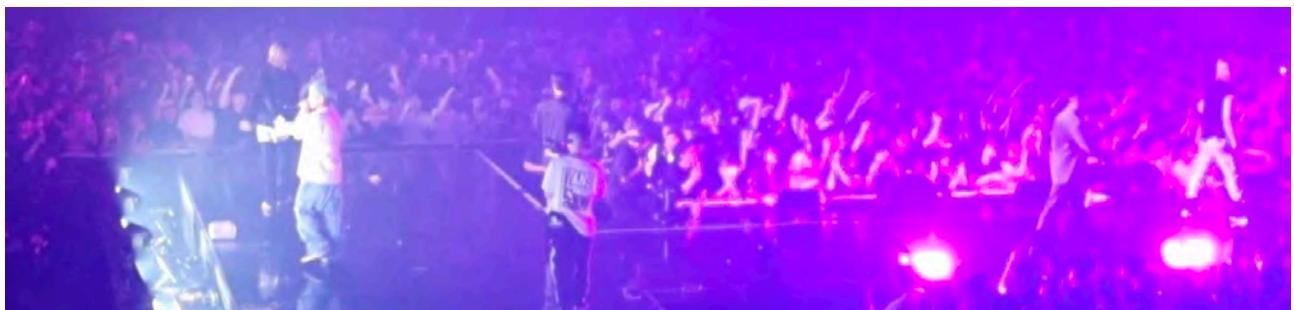
AP CONCERT

By WRITERSGLOCK

지난 6월 3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Ap 알케미의 첫 단체 콘서트가 성공적으로 열렸다. 마치 용광로와 같았던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 공연은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고 느꼈고, 화정체육관을 가득 채웠던 그 날의 열기와 습기를 다시 떠올리며 후기를 적어보려 한다. 참고로 ‘말’과 ‘탈’에 해당하는 이슈들은 다루지 않을 예정이니 양해 바란다.

2014년 막 힙합에 관심을 가졌을 때부터 저스트뮤직의 팬을 자처하던 사람이지만 공연을 직접 가본 적은 없었다. 그래서 이번 공연 소식을 듣고 무슨 일이 있어도 갈 것이라 마음을 먹었다. 특히나 기대를 했던 것은 앞으로 쓴을 이끌 신세대 아티스트들과 지금까지 쓴을 이끌어온 베테랑 아티스트들이 한 무대에 전부 모인다는 점이었다. 그 중 컴필레이션 앨범에서 인상 깊게 들었던 인재, 오카시갱, 노윤하, 김상민그는감히전설이라고 할수있다 등의 신인 아티스트들의 역량을 실제로 확인하고 싶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들은 현재도 성장 가능성이 넘쳐 흐르며 미래의 쓴을 이끌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무대에서 마음껏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그들과 그들에게 열광하는 관객들을 보며 스윙스의 안목에 새삼스레 놀랐던 것 같다. 개인적으로 가장 놀라웠던 신인들을 꼽아보자면 인재, 윤다혜, 노윤하, Shinjihang, 오카시갱, 쿰, 지용이다. 라이브 실력은 둘째 치더라도 일단 무대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고 능숙한 모습을 보며 저것이 과연 7000명을 눈 앞에 두고 라이브 공연을 하는 신인의 모습인가, 감탄을 했다.

베테랑들은 역시나 베테랑이다, 싶은 생각이 들게 했다. 공연은 컴필레이션 p side의 1번 트랙인 “Rain maker”로 문을 열었는데, 정말 깔끔한 출발이었다고 생각한다. 70명 가까운 사람들을 움직이는 수장으로서 스윙스의 카리스마가 확실히 드러났다. 그 밖에도 한요한, 그냥노창, 블랙넛, 키드밀리, 진보 등의 베테랑들은 무대에 올라올 때마다 입 벌어지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다. 블랙넛과 키드밀리는 좋지 못했던 화정체육관의 음향을 별 일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릴 정도로 완벽에 가까운 라이브를 펼쳤다. 한요한은 특유의 에너지로 공연장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으며, 진보는 여유로운 태도로(착장 마저 마치 휴양지에 온 듯한) 관객들을 조련했다. 개인적으로 공연에서 가장 벅찼던 순간은 “더”에서 그냥노창과 눈이 마주쳤을 때였다. 율동이 바스코 파트를 하는 중에 노창이 객석 가까이 왔는데, 관객과 함께 뛰며 노래하는 노창과 눈이 마주친 순간 알 수 없는 쾌감에 휩싸였다. 이어폰을 통해서는 이뤄질 수 없는 감각의 연결이었고, 동시에 ‘나는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후 노창은 쉽게 들을 수 없는 자신의 개인곡까지 불러주며 마음 속 1인자에 굳건히 자리잡았다.





좋았던 무대는 정말 많았지만 그 중 몇 개만 꼽아보자면 “더”, “뭐 먹고 살았을까”, “No One Likes Us”, “Rain Shower remix”가 있다. “더”는 <파급효과> 수록곡 중 가장 인기가 많은 곡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알고 따라 불렀다. 떠난 멤버들의 벌스는 새로운 멤버들이 대신 불렀는데(씨잼-> Shinjihang, 바스코-> 울음), 스윙스 벌스를 다민이가 같이 부른 걸 봐서는 세대교체를 이 곡으로 표현하고자 한 것 같았다. “뭐 먹고 살았을까”는 “No One Likes Us”와 같이 에너지 그 자체인 무대였다. 앨범에서도 인상적으로 들었던 곡들인데 공연으로 보니 그 감흥이 몇십 배는 더했다. 공연장을 찢을 듯이 울리는 베이스와 래퍼들의 폭발하는 에너지, 그리고 그에 감응하는 관객들까지 가히 최고의 무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Rain Shower remix”는 앵콜곡이었는데, 과거 저스트뮤직을 상징하는 곡이기도 하고 마지막 곡이라는 생각에서인지 거기 있던 모두가 목 터져라 따라부르며 뛰어 놀았다. 거기에 스윙스와 블랙넛의 상탈 퍼포먼스는 보너스.

할 이야기가 너무나 많다. 너무나도. 그만큼 꽉꽉 들어찬 콘서트였고, 무대 하나 하나 아티스트 한 명 한 명 한 곡 한 곡 뜯어보자면 몇 시간이라도 떠들 수 있을만한 공연이었다. 세 시간 반이 어떻게 지나는지 모를 만큼 신나게 놀았고, 현장에 있던 수천의 사람들은 Ap 알케미가 살짝 엿보여준 한국 힙합의 현재와 미래를 각자의 기억에 담아갔다. 누군가는 이 무슨 호들갑인가 싶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러나 7000여명의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든 이들의 힘에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바로 AP 알케미가 새롭게 그려나갈 미래의 힙합씬이 가슴 떨리게 기대되는 이유이다.

NOWITZKI SHOWROOM

By EASYB / Photo By mmero_photo 

오랜 작업 기간과 신비주의, 그리고 간간히 공개하던 선공개곡들로 빈지노의 앨범 <NOWITZKI>에 대한 기대는 2023년 그 어떤 앨범보다 뜨겁다. IKEA는 빈지노측과 협업해 그의 스웨덴 작업 환경을 재현하는 쇼룸을 개최했다. 어쩌면 발매가 임박한 <NOWITZKI>의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쇼룸 후기와 사진들로 그 힌트를 풀어가보자.

총 세 부분으로 나뉜 공간이 펼쳐진다. 주방 공간엔 빈지노가 직접 남긴 방명록과 다이닝 테이블, 작은 소파가 마련되어 있었다. 또 연필과 아기자기한 화분같이 쇼룸의 분위기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Beenzino

**새 앨범을 작업한
스웨덴 말뫼 작업실을
소개합니다.**

"스웨덴 남서부 항구에 위치한 도시 말뫼에서 새 앨범 <노비츠키(NOWITZKI)> 작업을 진행했어요. 북유럽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고, 새로운 작업을 위해 뭔가 다른 곳으로 가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머물렀던 스튜디오는 현관을 열면 부엌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소파가 있는 구조여서 작업을 하는 동안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원두 공장을 개조한 공간이라 커피가 다양하게 있었거든요. 안으로 좀 더 들어가면 음악 소리가 들려오는 메인 스튜디오가 있고요. 이렇게 제가 이번 앨범을 만들면서 지냈던 작업실에서의 경험과 새 앨범 음악을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고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빈지노 뮤지션 (대한민국)

본격적으로 거실로 들어선다. 큰 소파와 테이블, 옷장이 배치되었고 테이블 위엔 드럼 패드, 옷장 안엔 노비츠키의 유니폼이 들어있었다. 벽에 있는 액자 속 사진들은 앨범을 향한 여정을 조금이나마 따라올 수 있도록 돋는다. 따뜻한 분위기 연출이 좋았으며 빈지노의 음성 샘플이 담긴 드럼 패드는 지나가는 공간치고 재미있는 아이템이였다.

메인이라 할 수 있는 공간은 작업실이다. BANA의 인스타 계정으로 볼 수 있었던 사진이 벽에 영사되면서 책상 위 노트북과 마이크, 스피커를 볼 수 있었다. 선공개곡들도 들을 수 있었는데, 하나같이 절제미가 넘치며 기타를 메인으로 삼은 비트가 많았다. 하나 장담할 수 있던 것은 본 행사에서 공개한 음원들은 <NOWITZKI>에 대한 기대감을 더 끓게하기에 충분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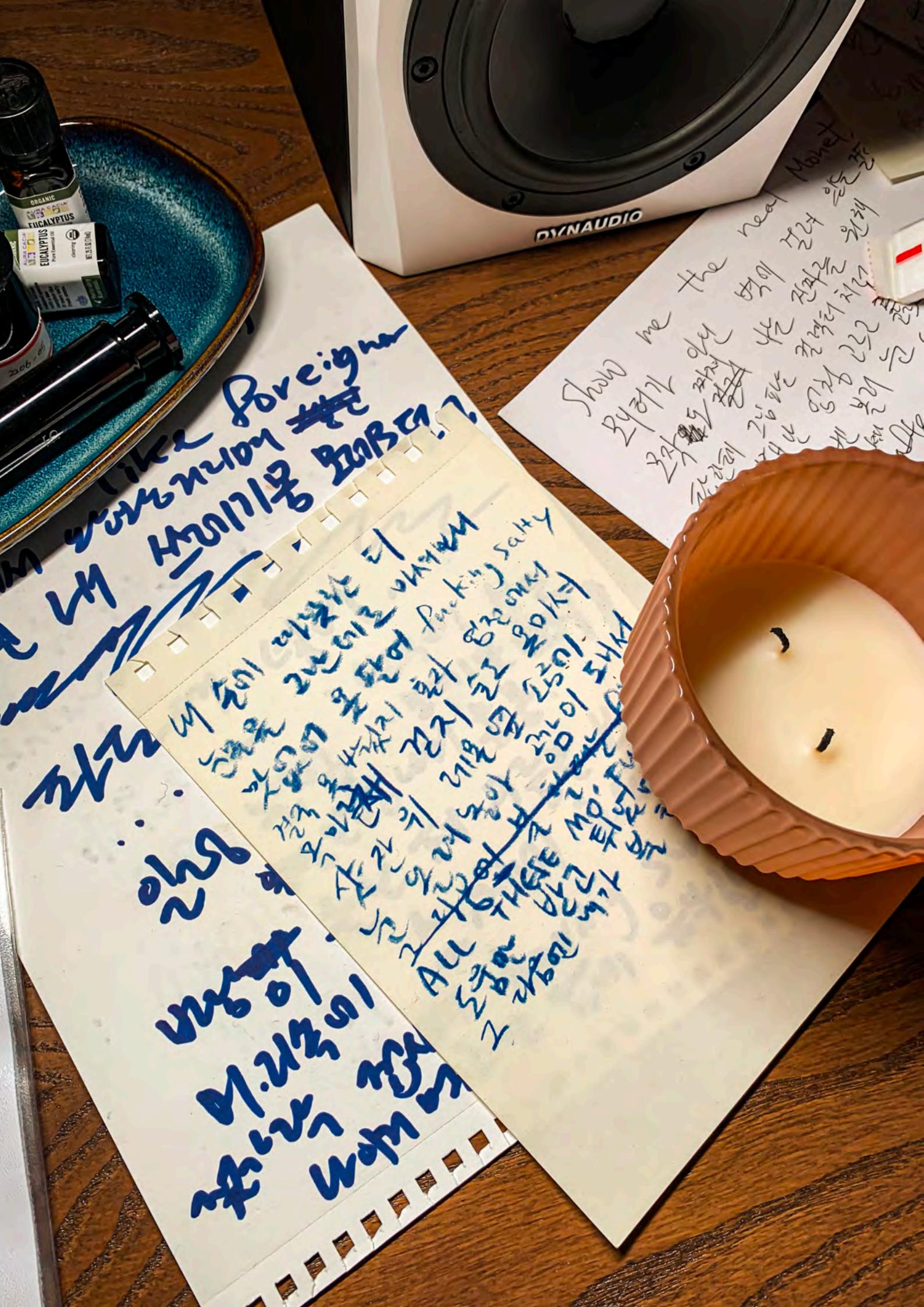


<NOWITZKI>의 작업 현장을 옮겨놓은 쇼룸은 예상대로 앨범의 색채를 간단히 보여주었다. IKEA의 포근하면서 다양한 색감을 가진 가구 배치는 선공개곡 "Lemon"이나 현장에서 공개한 곡들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진다. 정말 이와 흡사한 인테리어의 작업실에서 앨범을 만들었다면, 단순히 빈지노의 창의력만이 앨범을 완성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은근하게 보여준다. 작업실의 재현을 통해 앨범을 보여준다는, 힙합에서 찾아보기 힘든 프로모션은 성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빈지노와 이케아의 <NOWITZKI> 쇼룸은 이케아 광명점에서 7월 20일까지 만나볼 수 있으며, 선착순 30명에게 <NOWITZKI>의 데모 CD를 제공한다.







ZOOMTERVIEW

공ZA의 ZOOMTERVIEW #2

with Alive Funk

*풀버전은 힙합엘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줌터뷰를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공ZA라고 합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듀서 Alive Funk라고 하구요. 상황에 따라 팀원들의 백업 DJ나 믹스, 마스터링 엔지니어로서도 활동하고 있어요. 20년에 첫 정규 앨범 [DI-ANA]를, 21년에는 [Pop-Up Store Vol.1]과 [Pop-Up Store Vol.2]를 발매했고, 최근에는 2집 [SHAM]을 발표했습니다.

Alive Funk라는 활동명은 어떻게 짓게 되셨나요?

제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프로듀서가 앨범을 발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페니 님의 [Alive Soul Cuts]라는 작품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당연히 페니가 플레이어이고 앨범의 프론트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프로듀서가 앨범을 낼 수 있다는 걸 알게됨과 동시에 살아있다는 뜻인 Alive의 어감이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따온 Alive와 제가 프로듀서 Dam Funk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에게서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해서 마침 좋아하는 단어 두 개인 Alive와 Funk를 조합하여 저의 활동명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Funk라는 단어에 조금 더 살을 덧붙이자면 저는 Funk라는 장르가 음악의 기원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Alive Funk는 살아있는 기원, 즉 오리지널이 살아있다는 뜻으로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Alive Funk님의 음악을 듣고 특유의 횡키한 베이스가 살아 숨쉬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살아있는 횡키한 베이스'라는 뜻의 Alive Funk로 추측했었는데, 다양한 이유를 통해 활동명을 지으셨네요.

그것도 마냥 틀린 추측은 아닌 게, 제가 음악을 밴드 악기 중에서도 베이스로 시작했어요. 횡키한 음악들을 많이 연주하고, 듣고 즐기기도 해서 그렇게 이름을 짓는데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활동명에 다양한 의미가 있는 걸 말씀해주셨고, 이번에 발매하신 [SHAM]이라는 앨범에 대해서도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SHAM]은 정확한 표기법은 아니예요. 샴쌍둥이라는 단어에서 [SHAM]이라는 키워드를 따오게 되었는데, 영어로 표기하면 'Siamese Twins'예요. 그런데 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Sham'이라는 단어가 태국어로 알고 있어요. 그 단어 자체의 어감이 좋아서 앨범 이름으로 쓰게 되었어요. 앨범 안에서는 제가 하는 생각들, 제가 하는 고민들, 어떠한 선택을 내릴 때 고민했던 것을 다른 사람들도 틀림없이 경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하는 생각을 남도 하고, 남이 하는 생각을 나도 하고, 우리는 모두 공유되어 있고, 인류는 모두 하나라는 주제로 앨범을 만들게 되었어요. 앨범의 목적성에 맞게 우리는 하나라는 걸 표현하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 생각하던 도중 '쌍둥이'라는 키워드가 생각이 나면서 'Sham'이라는 형용사적 표현을 빌려서 앨범 제목으로 짓게 되었죠.

앨범 소개글 마지막 멘트를 보면 정규 3집을 암시하고 있던데, 혹시 정규 3집도 바로 준비 중이신가요?

저희가 내일을 살려면 오늘을 살아야 내일이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3집을 내기 위해서는 2집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죠. 꿈이 있는 사람이나 직장인 분들, 여러 계통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무언가를 할 때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는 과정을 마쳐야 하는 것처럼 3집을 위한 2집이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앨범을 만들면서 굉장히 지쳤던 적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도 '나중에 3집은 어떻게 만들지?'라는 고민을 저절로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2집을 내는 이유는 3집을 발매하기 위해서구나.. 마찬가지로 4집을 내기 위해서는 3집이 필요하겠죠.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앨범 소개글 마지막 멘트를 그렇게 작성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는 과정을 마쳐야 나중이라는 결과물에 도달할 수 있다는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볼게요. 1집 [DI-ANA] 같은 경우는 샘플 사용을 최소화로 하는 아날로그한 방식으로 앨범을 제작하셨는데, 이번 앨범 [SHAM]을 들어보면 적극적으로 가상 악기도 사용하시면서 보다 다양한 사운드를 만들어내셨어요. 혹시 제작 방식이 바뀌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DI-ANA]를 제작했을 때 샘플을 아예 사용하지 않은 건 아니예요. 드럼 샘플도 샘플의 일부니까요. 쓰지 않은 건 가상 악기, 루프 샘플, 스플라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샘플이었고 드럼 샘플은 샘플로서 활용을 했어요. [DI-ANA]를 만들 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누구에게나 모든 앨범은 Legacy가 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1집은 시작이기도 하고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상징성을 담고 싶었어요. 분명히 앨범이 나오면 제가 퀄리티적으로 아쉬워할 것 같고, 시간이 흐르면 취향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를 만들어놓고 싶었어요. 그래도 이 앨범은 내가 엄청 열심히 만들었고, 애착을 남겨야겠다는 생각에서 그 당시에 할 수 있었던 가장 고전적인 방법을 택해서 굉장히 돌아가는 길로 [DI-ANA]를 제작했죠. 2집 [SHAM]은 그것보다는 좀 더 내추럴하고 편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몇몇 분들은 비트가 가벼워졌다고 말씀해주시기도 하셨는데, 저는 그 표현이 나쁘다고 느껴지지 않고 맞다고 생각해요. 1집은 지금 제가 들어봐도 굉장히 무겁고 어려운 앨범 같아요. 그래서 2집을 만들게 된다면 내가 듣는 플레이리스트의 성향을 띠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작의 자유도를 많이 높였죠. 샘플뿐만 아니라 가상 악기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엄청 폭넓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집 같은 경우라면 피아노를 쓰고 싶으면 실물 피아노가 있어야 그 사운드를 구현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2집에서는 피아노 사운드가 필요하면 가상 악기를 셀렉해서 아름다운 소리를 쓰면 되니까 자유도가 엄청 늘어난 거죠. 심경의 변화가 딱히 있었다기보다는 1집이 그냥 그러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저도 이번 앨범을 들으면서 40분 동안 듣는 13트랙이 술술 넘어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집보다는 확실히 더 듣기 편한 앨범을 만드셨다고 느꼈습니다.

억지로 컨셔스해지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아티스트적으로 무언가를 접근하기보다는 나는 평범한 일반인이다라는 마인드로 제작했어요. 아티스트가 사실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길 지나가다가 어떤 구조물을 보고 어떠한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아티스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특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편한 마음가짐으로 만들었던 앨범이었습니다.

앨범을 보면 피처링진이 22명으로 많은 분들을 섭외하셨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피처링 섭외가 이루어졌고, 또 그 중에서 Alive Funk님의 마음에 가장 든 아티스트가 있다면 누구일까요?

섭외 같은 경우에는 제가 1집을 발매했을 때는 아는 래퍼들이 많이 없었어요. 1집과 싱글 앨범들을 차례로 발표하면서 우후죽순으로 아는 래퍼들이 많이 늘어났죠. 그 중에서도 모르는 플레이어들이 있었죠. 개인적으로 인연이 없는 아티스트는 대표적으로 최엘비 님이었는데요. 최엘비 님에게는 정공법으로 인스타그램 DM이라는 방법을 택했어요. '제가 <거울>이라는 트랙을 만들었는데, 마음에 드시면 꼭 당신의 가사와 목소리를 이 곡에 싣고 싶다'는 내용으로 메세지를 보냈죠. 그 메세지를 보시고 다행히 최엘비 님의 기호에 <거울>이라는 곡이 맞으셔서 참여가 이루어졌어요. 또 화지 형 같은 경우에는 이테라는 래퍼가 예전에 [Molly]라는 앨범을 낸 적이 있었는데, 그 작품에서 <백미러>라는 곡으로 호흡을 맞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피처링으로 참여한 화지 형의 번호나 안면은 어느 정도 있는 편이었는데,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누거나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는 아니었죠. 그런 사이였지만 제가 카카오톡으로 무작정 부탁을 드렸죠. 아우릴고트는 일을 하다가 만난 인연이고, EK는 제가 이전에 참여했던 MBA 크루의 안경잽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 너의 목소리를 정규 앨범에 싣고 싶다는 부탁을 했더니 흔쾌히 응해주었어요. 서사무엘, 오도마, 신스 등 그 외 아티스트들은 이미 저와 친한 동료들이었어서 섭외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섭외하는 게 어려웠던 분들은 딱히 이번 앨범에서는 없었던 것 같아요. 1집 제작할 때는 아예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피처링진을 구하는데 꽤나 고생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통해 섭외를 드린 자메즈 님이나 딥플로우 님은 이전 앨범에 참여하신 이력이 있으니 2집에 섭외 요청을 드리는 것도 수월했죠. 완성도적인 측면에서 정말 놀라고 만족도가 높았던 건 화지 형과 서사무엘이에요. 서사무엘 같은 경우는 제 작업실에 한 번 놀러왔었는데, 갑자기 '한 곡 하자'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 친구가 저보다 한 살 어리기는 하지만 친구로 지내고 있고, 작업실에서 곡을 한 번 들려주었는데 네 마디 정도를 듣자마자 바로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드럼하고 베이스 라인을 제외하면 아무것도 없는 트랙이여서 그냥 한 소리겠거니 했는데, 나중에 보컬 어레인지 한 파일을 보내주더라고요. 저는 이 장르가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운드라고 생각했는데, 서사무엘은 이 장르를 너무 잘 이해하고 있고, 쉽게쉽게 풀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파일이 오자마자 큰 만족을 했어요. 또 기억이 나는 게 코러스 트랙이 70개가 넘었었어요. 받자마자 '야 이거 뭐야?' 이랬는데 다 이유가 있는 트랙들이더라구요. 근데 다 이유와 설득력이 있는 트랙들이어서 하나도 빼지 않고 전부 수용했어요. 화지 형 같은 경우에는 벌스를 받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 반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형이 맨 처음에 '형과 해보고 싶은 음악이 있는데 트랙을 보내봐도 되겠느냐?'라고 연락을 드렸을 때 앨범에 참여를 못 하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시간이 없어서 참여하기 어렵다고 답장이 왔는데 '맛이나 봐달라' 하면서 무작정 제가 곡을 보내버렸어요. 웬지 이 트랙을 들으면 화지 형이 참여를 할 것 같다는 일종의 자신감도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트랙을 듣자마자 '이려려고 안 들으려고 했는데 참여를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렇게 언급은 하셨지만 그렇다고 제가 닦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면서 가끔씩 안부 연락으로 '피처링 벌스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는 눈치 아닌 눈치를 드렸죠. (웃음) 그리고 완성된 벌스를 듣자마자 정말 깜짝 놀랐어요. <Hunting Season>에 함께 참여한 17 Peri도 물론 너무나 훌륭하게 소화해주었지만, 제가 썼지만 정말 어려운 그루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이 그루브를 완벽하게 이해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생각한 이상적인 퍼포먼스를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보나조이 같은 경우에는 저랑 가장 음악을 오래 한 아티스트 중 한 명이예요. 킁뉴스라는 저와 같은 크루에 소속이 되어 있고, 앞으로의 저의 모든 앨범의 첫 곡은 보나조이가 담당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저의 페르소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나조이와 앞으로도 더 많은 콜라보를 진행할 것이고, 그리고 이 아티스트의 퍼포먼스나 쌓는 하모니, 보컬 트랙들이 전부 다 설득력이 있는 메이킹을 항상 해왔어요. 신인이지만 앞으로도 주목을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예상을 감히 해봅니다.

앨범에서 총 세 곡에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앨범에서 나올 때마다 청자들을 확 몰입시킬 만한 퍼포밍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첫 트랙에서도 빨려가는 듯한 느낌의 보컬 퍼포먼스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첫 트랙은 아예 작전을 짰었어요. 원래는 첫 곡이 다른 트랙이었는데, 제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인트로에서 압도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에서 비롯된 인트로 트랙이고, 보나조이도 충분히 그 역할을 잘 수행했어요. 그리고 이 곡이 특별하게 믹스를 저와 보나조이가 함께 진행했어요. 굉장히 앱스트랙트하고 실험적인 사운드를 담았고, 보컬 믹스에도 희한한 기법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보나조이도 믹스를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보컬 믹스를 보나조이가 전담해서 맡고, 저는 비트 믹스를 담당해서 작업을 진행했고 최종적인 마스터링은 제가 도맡아서 마무리 했죠.

원래 인트로가 다른 곡이었다라고 언급하시면서 트랙리스트 관련 이야기도 살짝 해주셨는데, 앨범의 트랙리스트는 어떤 부분을 제일 많이 고려하셨나요?

일단 트랙리스트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유가 있다면 일단 프로듀서가 주체가 되는 앨범이고, 어떠한 주제를 모든 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제와 서사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을 뿐더러 사운드적으로도 연결되기를 원했어요. 예를 들어 <Bright Side> 같은 경우는 시네마틱한 사운드가 나왔잖아요. 그런 다음 바로 포스트 디스코 사운드인 <No Filter>가 나오죠. 저는 항상 1번 곡은 크레딧이고, 2번 곡이 앨범의 진정한 인트로이자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No Filter>가 원래는 10번이나 11번에 넘버링이 되어있었는데, 이 곡을 들었을 때 워낙 넓고 사운드적으로도 가득 차있어서 인트로로도 손색이 없겠다고 싶었어요. 그런 생각에 <No Filter>를 2번으로 배치했고, 그 다음으로 <re Connect>, <거울>, <샤워> 순으로 진행되는데 여기서는 인간이 혼자 있을 때의 느끼는 감정의 프로세스를 담았어요. <re Connect>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혼자서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가사 중에 're Connect When I'm Alone'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나와 나를 연결한다'는 거죠. 제가 어떠한 걱정이나 상상력이 발현되었을 때 또 다른 내가 나와 연결이 되는거죠. 그러한 자전적인 이야기들을 3~5번 트랙에 배치했고 6번에서는 조금 쉬어가고 싶었어요. 어느 정도 환기를 시켜준 다음 7번 트랙 <Cinema Club>부터 어두우면서도 우중충한 사운드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배치했고, <소각 손실> 전까지는 제 기준에서는 영한 사운드를 담아내려고 노력했어요. 조금 Chill하면서도 드라이브할 때 듣기 좋은 음악으로 채우고 싶었고, 마지막 트랙은 다음 앨범에서 보여드릴 사운드와 연결이 될 수도 있는 앱스트랙트한 분위기의 곡이예요. <소각 손실>이라고 이름 지은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집을 전부 비워내야 3집이라는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죠. 저는 이 트랙을 통해 2집을 전부 소실시켰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것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이 곡을 3집의 인트로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앨범을 들어보았을 때 1번 트랙과 2번 트랙의 느낌이 서로 사뭇 다르기에 이후에는 어떻게 앨범이 진행이 될까 궁금했는데, 3~5번 트랙은 2번 트랙의 횡키한 분위기를 그대로 잘 이어나가더라고요. 그리고 6번 트랙에서 보나조이 님이 앨범을 환기시킨 다음, 이후로 가면 갈수록 여름 느낌이 나는 트랙들로 채워져 있더라고요. 마지막 트랙은 앨범을 마무리 짓는 느낌으로 가져가주시면서 3집의 분위기도 예고해주셨습니다. 앨범 관련 마지막 질문인데요, <SHAM>에서 Alive Funk님이 뽑는 최애 곡을 소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듣기로는 :샤워"를 제일 많이 들을 것 같기는 한데, 가장 애정하는 곡은 "Hunting Season"이예요. 이유가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흙인음악을 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에너지를 빌려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 가짜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 소위 말하자면 본토 분들에게 제 음악을 하나만 소개해야 된다고 한다면 "Hunting Season"을 들려드릴 것 같아요. 이번 앨범에서도 제가 세션을 쓰지 않았어요. 제가 원맨 밴드로 베이스나 기타도 혼자 쳤는데, 이 곡은 어느 정도 우연성이 기반이 된 것 같아요. 곡을 들을 때마다 이 그루브가 대체 어떻게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만들었지만 구조적으로 훌륭하다고 느꼈어요. 17 Peri와 화지 형도 엄청난 퍼포먼스를 제곡에서 보여주어서 최애 곡으로는 "Hunting Season"을 고르겠습니다.



첫번째 질문 : 가장 최근에 들은 노래

Chromeo - “Over Your Shoulder”

Tame Impala & Thundercat - “No More Lies”

<SHAM> 앨범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말씀해주셨고, 이제 본격적인 줌터뷰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번째 질문입니다. 가장 최근에 들은 노래를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름이다 보니까 조금 신나는 넘버를 듣고 싶어서 Chromeo의 “Over Your Shoulder”를 골라보았습니다. 굉장히 횡기하고 디스코틱한 노래인데, 가사도 위트가 있고 재미있어요.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음악 중 하나이기도 하고, 특히 여름에 어울리는 기타 멜로디나 횡기한 사운드가 두드러져 요즘에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Chromeo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한 일렉트로닉 듀오 팀인데, 제가 Last.Fm이라는 사이트를 많이 디깅하는 편이예요. Daft Punk의 <Random Access Memories> 앨범을 듣고 이런 사운드를 보여주는 팀이 없나 찾아보았는데 그 때 Chromeo를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온 노래 중에는 Tame Impala와 Thundercat이 함께한 “No More Lies”를 자주 들었어요. 둘 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인데, 콜라보한 곡을 듣고 너무 좋아서 요즘에 정말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여름에 맞는 횡기함이 이 트랙의 매력인 것 같아요. 시원시원하고, 신나는 분위기를 연출하구요. 악기 어레인지도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더욱 손이 많이 갔어요.

두번째 질문 : 최근에 가장 많이 들은 노래

Kanye West - “Paranoid”

가장 최근에 들은 노래로 두 곡을 골라주셨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들은 노래인데요. 어떤 곡을 최근에 가장 많이 들으셨을까요?

최근에 가장 많이 들은 노래는 Kanye West의 “Paranoid”예요. 이 노래는 제가 여름이 올 때마다 항상 준비해놓는 것 같아요. ‘여름이 왔다’라는 신호를 주는 트랙인 것 같아서 최근에 많이 듣는 음악 중에 하나입니다. “Coldest Winter”라는 트랙도 있고, 많은 분들이 겨울에 어울리는 앨범이라고 말씀하시는데 “Paranoid”만큼은 여름의 계절감과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앨범에서 제일 좋아하는 곡을 뽑자면 의외로 아까 잠시 언급했던 “Coldest Winter”예요. 사람들에게 많이 회자되는 트랙은 아니지만 그 곡만의 어떠한 비장함이 있거든요. 리듬 다이도 인상적이구요. 그래서 참 마음에 들었고 많이 들었던 곡입니다.



세번째 질문 : 나만 알고 있는 노래

Koss - <Born To Live>

Alive Funk님의 나만 알고 있는 노래는 어떤 곡일까요?

나만 알고 있는 노래라고 하기에는 뭐 하지만 조금 생소한 앨범을 추천드리자면 Koss라는 DJ의 <Born To Live>라는 앨범이 있어요. 그 앨범에 있는 곡들을 평소에 자주 즐겨 듣는 것 같아요. 앨범 중에서 한 곡을 고르자면 의외로 “A Word From Marley (Skit)”을 많이 들었어요. 이 곡에서 DJ Marley Marl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는 사실 정확히 잘 몰라요. 하지만 들을 때마다 뭔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스킵 자체가 되게 정적이잖아요? 비트도 그렇고 Marley Marl의 워딩도 침착한 바이브를 풍겨서 이 곡을 많이 듣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노래를 사람들이 많이 모르기도 하구요. 보통 스킵 트랙을 추천해주시는 분은 없잖아요? 이 앨범에서 여름 냄새가 나는 트랙을 고르자면 Master Ace가 참여한 “Longevity”입니다. 시원한 사운드가 일품이예요.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Koss는 올드스쿨 장르 쪽의 DJ로 알고 있어요. 연혁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 앨범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면 Master Ace, Keith Murray 같은 장르의 대가들이 눈에 띄거든요. 이 앨범을 알게 된 계기는 지난 번에 인터뷰하셨던 올드스쿨티쳐님이 이 LP를 선물해주셨어요. 받고 들어보았는데 너무 좋아서 그 이후에는 LP 말고도 플레이리스트에 넣고 자주 듣고 있습니다.

네번째 질문 : 라이브로 듣고 싶은 노래

Kendrick Lamar - “LOVE.”

Coldplay - “Fix You”

Koss라는 멋진 DJ도 소개해주셨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로 듣고 싶은 노래인데요. 어떤 노래를 골라주셨나요?

제 인생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공연은 Kendrick Lamar의 내한 공연이예요. 엄청 더운 여름날이었고, 이 공연에서 들었던 노래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Kendrick Lamar의 “LOVE.”라는 트랙인데요, 그 날 라이브를 보고 또 라이브로 듣고 싶어지더라고요. 물론 그 날 “King Kunta”를 비롯해서 멋진 곡들을 많이 했는데, “LOVE.”가 딱 나올 때는 이 공간에 사랑하는 사람과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운드도 많이 아쉬웠고 잔 실수도 많았지만 그 날의 공기가 생생하게 기억날 정도로 노래가 정말 아름답다는 표현이 딱 걸맞더라구요. 저는 < DAMN. > 앨범이 훨씬 더 테크닉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예상했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HUMBLE.”이나 “DNA.” 같이 랩 퍼포밍이 멋진 트랙들도 있지만, “LOYALTY.”, “PRIDE.”, “XXX.” 같은 곡을 들어보면 Kendrick Lamar의 예술성을 엿볼 수 있고, 치밀하게 계산되었다는 걸 느낄 수 있더라구요. 이 곡에 참여한 Zacari라는 싱어의 파트가 너무 좋아서 이후에 TDE에서 발매된 앨범도 큰 기대를 했는데, 이 곡에서 보여준 퍼포밍이 앨범에서는 안 나오더라구요. 라이브로 듣고 싶은 곡이 또 하나가 있는데, Coldplay의 “Fix You”라는 곡이예요. 이 노래는 유명한 사연이 있는데, 보컬 크리스 마틴의 전처 기네스 펠트로의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위로하기 위해 이 트랙을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가사를 보면 크리스 마틴이 얼마나 기네스 펠트로를 사랑했고,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다는 메세지가 강력하게 전달이 돼요. 저는 진짜 술을 못 마시는 편이고, 가끔 가다가 한 번 정도 마시는데 술을 마시게 되면 집이나 작업실에 와서 파리에서 한 라이브 영상을 꼭 봐요. Coldplay의 노래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곡이기도 해요.

다섯번째 질문 : 여행과 관련된 노래

CHVRCHES - “Graffiti”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여행과 관련된 노래로는 어떤 곡을 골라주셨을까요?

여행 하면 약간 신나는 분위기로 가야될 것 같고, 블랙뮤직으로만 플레이리스트를 짜기는 너무 아쉬워서 스코틀랜드 밴드 CHVRCHES의 “Graffiti”라는 곡을 골라보았어요. 이 밴드는 원래 3인조였는데, 최근에 드럼을 영입해서 4인조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프로듀서 이안 쿠이 결성하였고, 로렌 메이버리가 보컬을 담당하고 있어요. 밝은 신스팝을 주로 하지만, 이 앨범의 다른 트랙들을 들어보면 어둡고 우중충한 분위기의 곡들도 있어요. “Graffiti”는 앨범의 포문을 여는 트랙이고, <Love is Dead> 앨범의 메인 넘버는 “Never Say Die”와 “Miracle”인데 그 곡들은 어두운 편에 속하죠. 제가 이 앨범을 LP로도 가지고 있고, 워낙 오래 전부터 즐겨들었었기 때문에 다른 신나는 곡들도 많지만 “Graffiti”가 CHVRCHES의 노래 중에서는 가장 여행과 어울리는 트랙인 것 같아요. 실제로 여행을 갈 때 이 곡을 자주 듣고, 외출할 때도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곡에서 깔리는 신스 소리가 너무 청량하기도 하구요.

여섯번째 질문 : 취미와 관련된 노래

Oddisee - <The Odd Tape>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취미와 관련된 노래인데요. 어떤 취미에 관련된 곡을 선정해주셨을까요?

LP 디깅으로 골랐고, Oddisee의 <The Odd Tape>이라는 앨범을 선정해보았습니다. 굉장히 Chill 한 앨범이고, 안정감이 든다고 해야할까요? 앨범을 들어보면 인스트루멘탈 밖에 없는데, 취미라는 건 무엇인가를 하는 행위잖아요? 그것에 집중하고 몰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분에 맞춰서 한 곡을 고르자면 “Right Side of the Bed”입니다. 이 트랙을 고르게 된 계기는 이 곡 자체가 앨범에서 제일 기억에 남았고, 현재까지도 많이 들어요. 이게 2번 트랙인데, 이 앨범을 돌릴 때 이 곡부터 돌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만큼 좋기도 했고, 그 이후에 나오는 트랙들도 물론 좋기는 하지만 이 곡에서 나오는 샘플의 활용이라든가 재즈스러운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투머치 토크라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앨범 커버처럼 커피나 차 한 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 듣기에도 참 좋은 앨범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웃음)

일곱번째 질문 : 과거/현재/미래를 대표하는 노래

과거, 현재, 미래) Childish Gambino - <Awaken, My Love!>

과거) Michael Jackson - “Billie Jean”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과거, 현재, 미래를 대표하는 노래인데요. 혹시 세 가지 테마를 다 골라주셨나요?

저는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음반 한 장과 과거를 대표하는 노래를 골라보았습니다. 음반 먼저 말씀드리자면 Childish Gambino의 <Awaken, My Love!>예요. 일단 저는 이 앨범이 말씀드리는 표현이 어불성설이긴 하지만, 미래지향적인 빈티지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Gambino가 보여준 행보도 그렇고 이 앨범을 감상하면서 과거의 것들을 가지고 실험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테마를 부합하는 음반은 이 앨범이 아닐까 생각해보았습니다.



물론 이전 앨범인 <Camp>나 <Because The Internet>도 훌륭하지만 항상 <Awaken, My Love!>는 매번 들을 때마다 세련됐다고 느껴져요. 그래도 앨범 커버는 조금 무서운... (웃음) 앨범에서 한 곡을 고르자면 저는 “Zombies”가 제일 좋았어요. 이 곡은 들을 때마다 굉장히 오묘해요. 어떨 때 들으면 신나다가도, 어떨 때 들으면 우울한 것 같기도 해요. 들을 때마다 감상이 달라지는 게 이 노래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많은 곡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Zombies”를 들을 때마다 어느 날은 신비하게, 에스닉하게, 앤티크하게 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Redbone”은 들을 때마다 섹시함이 강조되는 잘 만드는 노래라고 느껴진다면 이 곡은 청취할 때마다 감상평이 달라지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앨범에서 제일 좋게 들은 것 같아요. 과거를 대표하는 노래는 Michael Jackson의 “Billie Jean”을 골라보았는데요. 저도 Michael Jackson이 활발하게 음악 활동을 하던 시기에 10~20대가 아니였기에 그 세대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지금 듣기에도 그의 음악은 너무 세련됐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노래이기도 하구요. 저는 이런 사람이야 말로 죽음을 초월했다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도 그를 그리워하고, 앨범은 아티스트의 유산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유산을 정말 제대로 남긴 아티스트가 아닐까, 감히 생각해봅니다. Michael Jackson이 춤 때문에 보컬이 과소평가되었다는 의견에는 어느 정도 동의해요. “Smooth Criminal”이나 “Beat It” 같은 트랙을 들어보면 이런 노래가 참 부르기 힘들다는 걸 보컬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의 퍼포먼스가 워낙 뛰어나고, 매직 댄스 같은 퍼포밍 관련해서 많은 부분들을 남겼잖아요? 그런데 “Man In The Mirror” 같은 곡을 들어보면 감미로우면서도 폭발력이 있죠. 위와 같은 곡을 들어보면 Michael Jackson이 보컬 또한 훌륭한 아티스트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 : 인생 곡 혹은 인생 앨범

Kanye West - “Stronger”

어느덧 마지막 질문을 드릴 차례인데요. 인생 곡 혹은 인생 앨범 질문입니다. 혹시 Kanye West의 곡을 골라주셨나요?

역시 맞추셨네요. 인생 곡이라고 하면 단순히 좋은 음악을 넘어서 제 인생과 일상에서의 무슨 일을 바꿔놓아야 한다는 기준이 있어요. Kanye West의 “Stronger”라는 노래를 듣고 비트를 찍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 전부터 Nas나 Jay Z, 50 Cent 등의 유명한 래퍼들의 음악을 들어왔지만, 제가 20대가 되고 나서 원래도 이 노래를 알고 있었지만 처음으로 클럽에 가서 이 트랙을 듣는데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따라 부르면서 춤추는 광경을 보면서 이런 음악을 만들어보고 싶다고 느꼈고,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하나의 사건이었죠. 그래서 인생 곡이라고 하면 항상 Kanye West의 “Stronger”를 꼽곤 합니다. 제 인생을 바꿨고, 다른 진로를 설정하게 만든 곡이니깐요. 원래 그 전까지는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었어요. 스무살 때 방학을 맞이하고 처음 홍대 클럽에 가서 놀다가 이 곡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더라고요. 노래가 원체 좋은 걸 알고는 있었지만, 그런 장면과 함께 하니까 이 음악을 드는 저조차도 멋있게 느껴지더라구요. (웃음)

그럼 그 때 당시에는 Kanye West의 <Graduation>처럼 전자음악과 샘플을 결합한 음악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제가 그 당시에 Kanye West를 좋아하기는 했지만, 또 유명한 아티스트로 T.I.가 있었어요. <Paper Trail>의 “Whatever You Like”가 히트했죠. 그 때는 샘플링이 무엇인지도 잘 몰랐어요. 제가 프로듀서나 비트 메이커 치고는 샘플링을 굉장히 뒤늦게 입문한 편이예요. 그래서 “Stronger” 같은 음악은 저에게는 일렉트로니카 같은 곡이었어서, 맨 처음에는 서던 장르 위주로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유행했던 T.I., Young Jeezy, Chamillionaire 등의 음악을 들으면서 유행하던 사운드에 치중하여 제 음악을 작업했었죠. 그러다가 Alive Funk라는 이름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인데, 직업으로서 음악을 하다 보니까 이에 관한 오리지널은 어디서 왔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GrandMaster Flash부터 시작해서 Kurtis Blow 같은 옛날 올드스쿨 래퍼들도 찾아듣게 되면서 기원들을 연구하고 '이런 사운드에서는 이런 드럼머신을 사용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듣는 음악도 많이 바뀌게 되고, 많은 전환점을 겪다가 저만의 오리지널리티를 찾기 위해서 지금의 음악 취향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Outro : 인터뷰 참여 소감

본인의 인생을 음악이라는 새로운 길로 인도한 Kanye West의 노래를 인생 곡으로 뽑아주시면서 오늘의 인터뷰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인터뷰 참여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인터뷰를 할 때마다 무척 설레요. 이 글을 통해서 제 이야기를 읽으시는 분들과 교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반 친구들에게 '나는 이런 거 듣는데 넌 어때?'라는 느낌으로 인터뷰에 참여하고, 이 플레이리스트를 보신다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리스너 분들이 아시게 되는 창구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재밌었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줌터뷰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겨울에 다시 한 번 꼭 모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줌터뷰에 참여해주신 Alive Funk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PopularNo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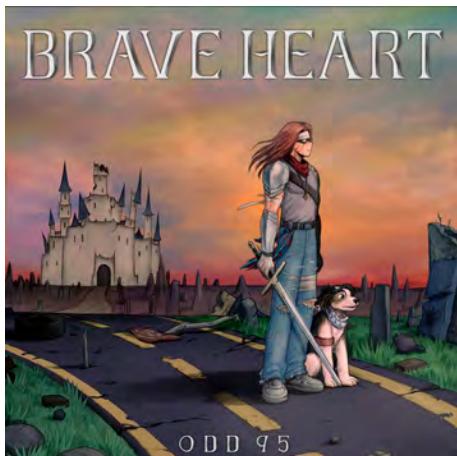
KORG



FIRST HALF RECAP

JANUARY

Review by Devi Ken



BRAVE HE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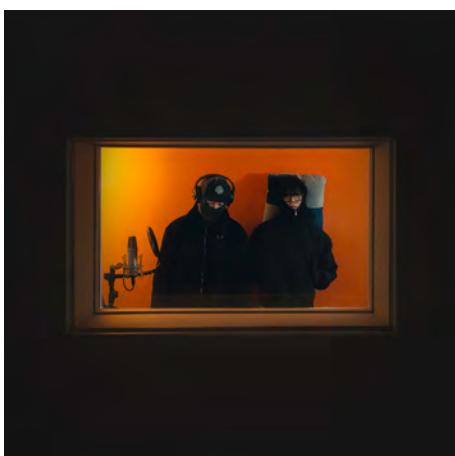
Odd95 01.12

한동안 스킬풀한 랩 퍼포먼스를 주로 선보이던 Odd95가 정규 3집 <브레이브 하트>를 발매했다. 전작들부터 주목받았던 그의 싱잉 능력은 이번 작품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총 11곡으로 구성되었으며 Odd95가 줄곧 추구해왔던 이모락 감성을 더 완성도 있게 구현해냈다는 점에서 기존 코어팬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듣게 될거라는 기대를 품게 한다. 특히 곡 제목에서도 느껴지는 작명센스는 오직 Odd95만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자 진정성이다.

DEMO

Tang 01.16

누군가에게 기억되어 이름이 불려진 나무에게 이 겨울은 어떤 의미일까? 1월 16일, 아직 겨울이 한창일 때 탱의 정규 1집 <데모>가 발매됐다. 자유를 위해 투쟁하던 1980년대 학생운동 현장이 앤 범커버로 쓰였으며 화자 현태웅 역시 스스로의 생존과 해방을 위해 불가피한 악행을 하는 인물로 묘사되었다. 트랙 간에 여러 장치와 그로테스크한 사운드가 앨범의 몰입도를 높였으며 아웃트로에서 세상을 바꿀거라 외치는 그의 다짐으로 데모는 마무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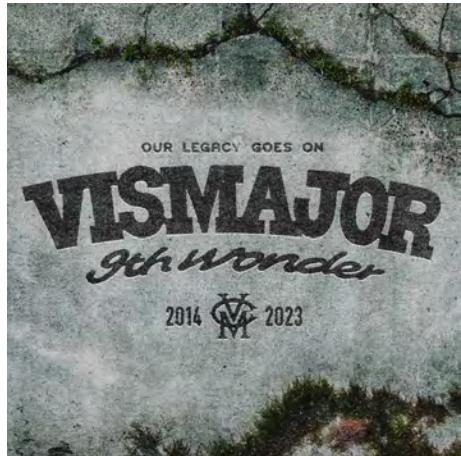
TOAST

TOIL, Gist 01.27

스킨니브라운과의 <토끼니브라운>, 릴리말즈와의 <TOYSTORY> 앨범에 이어서 토일과 지스트의 합작 정규 앨범 <TOAST>가 발매되었다. 3개의 타이틀곡 "Friends With Benefits", "끌말잇기", "Return"에서 그는 우리가 토일에게 바랐던 팝 사운드를 어김없이 보여주었다. 이외에도 다양한 피쳐링 참여진이 앨범의 색깔을 다채롭게 해주었으며 메인 플레이어 지스트의 캐치한 멜로디 메이킹 능력은 <TOAST>의 후속 시리즈 등장을 기대하게 한다.

FEBRUARY

Review by LODING



9TH WONDER

VMC 02.02

약 9년간 활동한 레이블로서의 VMC가 해체한다는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아쉬움을 안겨줬다. 이런 상황 속 나온 레이블의 마지막 앨범인 <9th Wonder>은 예상 외이면서도 VMC스러운 마무리였다. 전체적으로 절제된 프로듀싱은 흔히 생각하는 VMC의 하드코어함과는 반대되나 그럼에도 이들은 우직하게 자신의 스타일을 밀고나가며 특히 마지막 트랙인 "9th Wonder"은 장렬한 랩과 비트가 합쳐져 여운이 남는 끝맺음을 선사했다.

THE FROST ON YOUR EDGE

Seori (30) 02.19

서리(30)의 컴필 앨범들은 늘 힙합이 보여줄 수 있는 오락적인 쾌감을 극한으로 끌어올린다. 새 멤버 딥플로우까지 합세한 본작에서도 변함없이 호전적인 태도로 기발하고 도발적인 라인들을 쉴새 없이 내뱉으면서 말 그대로 상대를 절벽 끝까지 떨어트린다는 각오로 임하는 '공격 태세'를 여과없이 보여준다.



PRESSURE MAKE DIAMONDS

CAMO 02.22

전작 <Fragile>은 카모의 트렌디하고 이국적인 색깔이 잘 묻어난 수작이었다. 첫 정규 앨범인 본작 또한 비록 전작에 비해 짜임새 면에선 아쉬웠어도 그녀만이 가진 강점과 매력 아직까지 유효하단걸 증명하기엔 충분했다. 특히 "MAPSI"를 필두로한 후반부는 이러한 점이 가장 잘 발휘된 구간이었다.

Honourable Mention: <The Core Tape Vol. 1> - Dok2, <feel you, kon> - 라콘, <Heaven> - 이바다, <oceanfromtheblue> - oceanfromtheblue

MARCH

Review by WAVE



REMEMBER ARCHIVE

Code Kunst 03.16

견고히 자기 영역을 구축한 코드 쿤스트가 더욱 다채로워진 음악과 함께 돌아왔다. 세련된 팝 사운드 위에 적재적소로 기용된 피쳐링은 강렬한 빛을 내며 앨범에 색을 더하고, 그는 빛의 농도를 능숙히 조절하며 앨범에 완성도를 더한다. 드라이브와 함께 듣는다면, 운전이 좀 더 매끄러워질 것이다.

DOUBLECROSS MUSASHI

Son Simba 03. 20

성장세가 눈에 띄는 아티스트, 손심바의 두번째 스튜디오 앨범. '네오 블루'이라 일컫는 드럼리스 사운드를 적극적으로 차용했으며, 일본 흑백 무사 영화를 연상케하는 깊이있고 묵직한 사운드와 컨셉이 특징. 틈틈이 배치된 나레이션과 피쳐링을 듣는 재미도 있다. 최신 '네오 블루'를 듣고 싶다면 주목!



P.O.E.M. IV : TYLER DURD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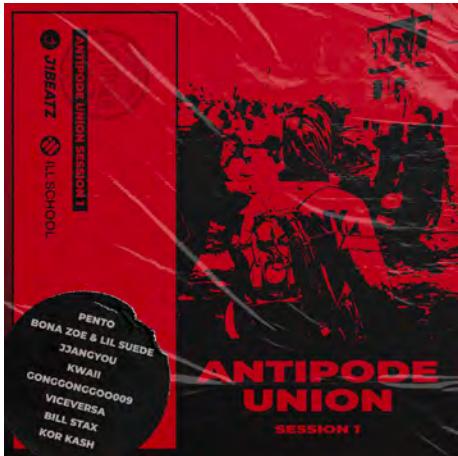
Owen 03. 21

이제는 베테랑의 반열에 오른 오원. 그의 대표 시리즈 <P.O.E.M.> 도 어느새 네번째 작품을 맞이했다. 피쳐링 없이 채워진 앨범엔 그간 겪은 사건들에 대한 자아성찰과 세태에 대한 비판이 가득하다. 앨범의 사운드가 정제되었다고 느꼈다가도 한켠에선 여전히 그의 불덩이같은 분노가 느껴진다.

Honourable Mention: <Trapstar Lifestyle> - Lobonabeat!, <YNR VS ALL> - Yng & Rich, <MADE IN SEOUL> - Don Malik

APRIL

Review by 쟈이즈



ANTIPODE UNION : SESSION 1

J1BEATZ 04. 06

비트 공유 플랫폼 J1BEATZ에 소속된 프로듀서들의 비트로 꾸려진 컴필레이션 앨범. 이 신진 프로듀서들의 비트를 빛내기 위해 우리에게 친숙한 뮤지션들이 대거 참여하였고 다채로운 랩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앨범 단위로 묶여있지만 모든 트랙이 독립적이며 마음 가는 대로 즐겨도 좋다. 의외의 조합이 낳는 신선함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NOT REALLY NOW NOT ANYMORE NUCK 04. 10

드디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넋업샨의 첫 솔로앨범. 모두가 처음 들었을 때 아마 반가움과 당혹스러움이 공존했을 것이다. 긴 기간 동안 준비해왔던 이번 작품에는 그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아픔과 고민이 담겨있고, 이 이야기를 기준에 들려주었던 사운드와는 다른 방식을 통해 구현해냈다. 넋업샨이 잘하는 것과 새로운 실험적 시도가 조화로이 섞여 있으며 2023년 작품 중 손꼽힐 완성도를 지니고 있다.



KOREAN CHEF II

TOMSSON 04. 27

대구를 거점으로 삼는 래퍼 탐쓴의 다섯 번째 정규작. ‘디저트’라는 소개처럼 전작 <KOREAN CHEF>에서 뻗어나가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언제나처럼 블-뱁 프로덕션 속 자신이 몸담고 있는 힙합문화에 대한 애정을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있으며 대구의 정서와 언어로 이를 표현해 더욱 독특한 맛을 지닌 작품으로 요리해냈다. 범람하는 트렌드 속에서 그만이 고수하고 있는 우직한 태도가 빛을 발하고 있다.

Honourable Mention: <FRR> - 죠지, <Reaching Out> - 스프레이, <서울> - 쿤타

"COVER DESIGN"

SNXO

"NEW ALBUMS"

악귀불패워럽

오호홍햄빠끄세트

자이즈

WRITERSGLOCK

"EDITOR'S PICK"

BlackMatter

악귀불패워럽

孔jesus

SNXO

LODING

DEVI KEN

"ZOOMTERVIEW"

孔jesus

Alive Funk

ISSUE #2

"MAGAZINE DESIGN"
BlackMatter

"BEIGE"
EASYB

"FEATURED"
Devi Ken
WRITERSGLOCK
EASYB
mmero_photo

"FIRST HALF"
Devi Ken
LODING
WAVE
쟈이즈

**SPECIAL SHOUT-OUT TO
EVERY BLACK MUSIC ARTISTS IN
SOUTH KOREA**



" HAUS OF MATTERS KHL KILL THEM ALL"

Korean black-music magazine created by KHL
Not officially affiliated with HIPHOPLE

Direct Links To

